

일제시대 三藏譯會의 성립과 역할

한 보 광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소장)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삼장역회의 역할 |
| 2. 역경조직의 성립배경 | 1) 초기의 譯經期 |
| 3. 삼장역회의 설립 | 2) 중기의 『화엄경』 譯經期 |
| 1) 설립과정 | 3) 후기의 著述期 |
| 2) 설립시기 및 장소 | 5. 맺음말 |
| 3) 三藏譯會 출판사 허가 취득 | |

1. 머리말

용성선사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심오한 종교인인 동시에 투철한 애국자이며, 혁신적인 개혁자이기도 하다. 그의 개혁은 혁명적인 파괴가 아니라 전통의 계승하면서 조용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불굴의 투사였다. 그는 불교의 장래를 걱정한 나머지 경전의 한글화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역경에 착수하였다. 그가 이러한 사업에 투신하게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민족적인 배경을 추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三藏譯會의 설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 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립과정과 설립시기 장소 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판사로서의 정부 허가취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三藏譯會의 역할을 3기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초기에는 분량이 적은 경전을 위주로 번역하였으며, 중기에는 『華嚴經』 번역에 착수하였다. 후기에는 주로 사상서의 저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역경조직의 성립배경

용성선사가 역경의 원력을 간절하게 세우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앙적인 면도 있으며, 시대적인 배경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1독립운동으로 옥중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교의 한글판 성경을 보고 느낀 충격은 대단하였던 것 같다. 그는 옥중에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결심한 것을 출옥과 더불어 하나 하나 착실하게 실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三藏譯會의 설립이다.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의하면,

대각응세 이천 구백 삼십육년 삼월 일일에 독립선언서 발표의 대표 일인으로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삼년간 칩창 생활의 신선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 각 종교 신자로서 동일한 국사범으로 들어온 자의 수효는 모를 만치 많았다.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

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며 기도하더라. 그때에 내가 열람하여 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오 한문으로 그져있는 서적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즉시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크고 큰 원력을 세운 것이다. ----중략----내가 만일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 진리 연구의 한 나침반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신유년 삼월에 출옥하여 모모인과 협의하였으나 한 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

고 한다.¹⁾ 여기서 그가 옥중에서 어떠한 결심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다른 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된 것을 보고 출옥하면 반드시 불경의 번역사업을 할 것을 발원하였다. 그러나 출옥하여 이 뜻을 상의하였으나 협조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방해만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출옥하자마자 바로 4월에 三藏譯會를 만들어 번역과 저술에 전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옥중 결심은 다른 곳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삼년간 철창생활의 신선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3·1독립운동으로 인한 옥중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불교 경전의 한글화 작업인 역경의 중요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가 출옥한 후 바로 착수한 것이 역경사업을 위한 三藏譯會를 개설하였다면, 다음으로 한 것이 바로 대각교회 설립과 大覺敎運動이다. 심지어는 僧籍까지 버리면서 이 운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1) 백상규 『조선글 화엄경』 권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龍城全集 12-987)

이 대각교운동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감옥에서 불교의 장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했더라면 그의 후반기의 생애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여러 종교의 포교방법론을 배우는 한편 불교의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후반기에 보여준 사원경제의 자립이나 전통불교의 수호, 포교의 현대화, 역경과 저술 등의 일들은 옥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체계화하여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파격적으로 불교의식을 한글화하고 불교음악을 작사한 것은 옥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받은 자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옥중의 생활은 단순한 복역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행기간이었으며, 새로운 종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그는 1921년 3월에 출옥하면서 후반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²⁾. 용성스님께서서 역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릴 때 그는 꿈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였다고 한다. 두 번에 걸친 수기 중, 먼저 출가하기전인 14세인 1877년 음력 10월 보름 경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록의 「師夢佛授記錄」에 기록하고 있다.³⁾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14살 되는 해 10월 15일경에 부처님으로부터 “너에게 정녕 부촉한다” 라고 하면서 입이(呬)의 摩頂授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꿈에 받은 이 수기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때까지 절에 가본적도 없었고 부처님을 친견하거나 참배한

2) 拙論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輯 (大覺思想研究院, 1999) P,43

3) 『龍城禪師語錄』卷下 「師夢佛授記錄」 P,29 (龍城全集 1-556)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 꿈을 꾸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남원 蛟龍山城의 德密庵에 가서 출가하게 된다.

이러한 꿈의 수기는 그가 출가한 것에 대한 인연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부촉한 뉘자의 의미와 부촉한 뜻에 대한 것을 항상 고심하다가 47세 되는 해에 다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선사는 출가하기 이전인 14살 때 꿈을 꾸고 난 뒤 다시 1910년 47세 되는 해에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또 한번의 꿈을 꾸게 된다. 이 때에는 부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너에게 부촉한 것을 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에 뉘자의 부촉을 받은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해매고 있다가 이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입이(뉘)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 譯經의 발원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에 걸친 부처님으로부터의 수기는 바로 선사에게 역경을 부촉한 것임을 깨닫고 역경과 저술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역경을 하게 된 첫 번째의 동기는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 받은 사명감이었다. 이러한 신앙적인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선사인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실천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역경과 저술은 선사의 종교적인 신념이며, 신앙적인 절대의 믿음인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단히 급변하던 시대였다. 나라는 일본에 빼앗겨 온통 절망에 빠져있었으며, 서구 사조가 밀려오는 것을 소화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였다. 나라에는 개화파와 수구세력들간의 알력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적인 우리의

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한문문화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어려운 한문 공부에만 매달려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한자가 모든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매체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다르다. 한자만으로 세계적인 학문과 사상을 연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자를 익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 따라서 선사는 불교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우리말과 우리글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려운 한자로 된 불경을 일반 대중이 모두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고는 불경을 볼 수 없는데 이는 잘 못이다. 특수한 신분을 가진 지성인들만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불경을 한글로 하지 않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없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는 『조선글 화엄경』의 「번역과 저술에 대한 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동나무 잎사귀 하나가 떨어짐을 보고 천하에 가을됨을 아는 것이니 세계의 인류는 생존을 경쟁하고, 경제의 파탄은 극도로 되어 가는 시대에 누가 한문에 뇌를 썩히어서 세월을 허송하며 공부하리요. 비록 수 십 년을 공부할지라도 한문을 다 알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요. 다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것이니 무엇에 쓰리요. 현금 철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정치학이나 기계학이나 모든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 가지고 수 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며, 또 수 십 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여서 큰 문장이 되었다할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다⁴⁾. 이와 같이 그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있었다. 개화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한문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던 시대는 지났음을 간파한 것이다. 어려운 한문에 매달리어 평생을 받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익혀야 할 학문이 많은 시대에 한문에만 수 십 년을 받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 십 년을 받쳐서 한문에 문장이 된다고 할 지라도 불경의 심오한 이치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동잎 한 잎 떨어짐을 보고 천하에 가을됨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견한 것이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된 불경을 간행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불법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詳譯科解金剛經』에서도 언급하고 있다⁵⁾. 그는 시대사조가 달라지고 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를 간파하였다.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경제생활에 급급하여 서로 생존경쟁에 바쁜 시대에 누가 한문공부에 수 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어서 하루 속히 불경을 쉬운 한글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못한다면 이는 한갓 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무리 많은 大藏經이라고 할지라도 오물더미에 지나지 않는 장경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승려로서 읽히지 않는 불경은 오물더미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히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인식은 다른 종교와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온 종교가 가두선전과 주일날이면 찬송가와 성경을 손에 들고 몰려드는 성당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불교도

4) 白相奎 역 『조선글 화엄경』 권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三藏譯會, 1928) (龍城全集, 12-88)

5) 白相奎 譯 『詳譯科解 金剛經』 「論今思潮」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교를 비방하기가 보통이며, 샤마니즘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하였다. 불교의 진리가 수승함에도 교리를 모르는 민중들은 이러한 선전에 현혹되어 불교를 멀리하게 되었다. 과거 조선 500년 동안 천시 받던 불교가 새로운 변화와 교육이 없이는 발전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셋째는 민족적의지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애국자였다.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서 애국과 민족의 독립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는 왜 굳이 일제치하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탄압하고 검열하던 때에 불경의 한글역경을 고집하였을까? 일제가 탄압하면 할수록,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말과 글을 고집하였다. 그것은 바로 민족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글로써 남길 수 있는 것이 못된다. 당시의 시대상황은 그를 자유롭게 두지 않았다. 그는 33인 중 한 사람으로 평생토록 변절하지 않은 독립운동가이며, 애국지사였다. 그러나 보니 그의 글 하나 하나는 검열의 대상이 되었으며, 출판허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경전을 한글화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바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독립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참선을 통하여 민중을 일깨웠으며, 선농불교를 실천하므로서 민족 자립경제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한국불교를 수호하므로 왜색불교를 물리치게 되었으며, 일요학교들을 통하여 후세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의 『조선글 화엄경』 「번역과 저술에 대한 여기」에서 역경이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애국운동과 관련있는 구절을 살펴 볼 수 있다⁶⁾. 이와 같이 중국 사람은 중국글을 조선사

람은 조선글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까지 우리글과 우리말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에 매여서 우리글을 천시하였고, 일제시대 당시에는 일본의 탄압에 의해 우리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역경 사업의 배경은 민족의 애국 애족의 일념과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그의 역경사업은 첫째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이 있다. 14세에 수기를 받고 잇었다가 47세에 다시 꿈에 부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는 역경을 하라고 하는 암시임을 깨닫고 경전번역과 저술에 착수하였다. 둘째는 시대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시대사조가 급격히 변해감에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한문으로는 모든 현대학문을 감당할 수 없을 인식하였다. 셋째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

3. 삼장역회의 설립

1) 설립과정

그는 출옥과 더불어 바로 착수한 것이 역경인데 몇 월에 三藏譯會를 설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부족하다. 필자는 『龍城禪師研究』⁸⁾에서 4월로 추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위의 글에서 본다면 출옥 후 바로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三藏譯會를 설립하였느냐고 하는 자료는 부족하다. 그가 번역한 『梵網經演義』

6) 白龍城譯 『조선글 화엄경』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상동

7) 拙論 「용성선사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大覺思想』 5輯 (大覺思想研究院, 2002)

8) 拙著 『龍城禪師研究』 (甘露堂, 1981) P187

는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데 이를 출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1921년 음력 5월 6일에 완역하였다고 한다.⁹⁾ 만약 그가 5월 6일에 『梵網經』을 번역하였다고 한다면 출옥과 더불어 바로 착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력 3월에 출옥하였으므로 음력으로는 2월경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음력으로 3월경부터 경전 번역작업에 착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三藏譯會의 설립은 이 때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그가 『범망경』을 번역하면서 후기에

梵網經心地品演義 終 佛紀2948年 5月 6日 陰曆 金井山 梵魚寺 沙門 白龍城 下筆

이라고 하였다.¹⁰⁾ 여기에서 보면 그는 출옥하면서 처음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梵網經演義』에서 범어사 사문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가 범어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용성스님의 중반기의 생애」¹¹⁾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13년 50세 때 범어사에서 大禪師 법계를 받으므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범어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임제종 중앙교당의 개교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포교에 전력한 것도 범어사와의 인연이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계기는 50세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출옥하면서 바로 海印寺 沙門이라고 하지 않고 梵魚寺 沙門이라고 한 것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梵網經演義』를 번역하였을 때 三藏譯會를 설립하였

9) 백용성 번역 『佛說梵網經演義』 필사본 (1921년 5월 6일 완역) (龍城全集 13-906)

10) 上同

11) 拙論 「용성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제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P21

다고 한다면 아마도 삼장역회 이름으로 출판하거나 혹은 그 이름이 들어갔을 것이지만, 『梵網經演義』 원고지는 「京城本町二 友井 印行」이라고 하는 출판사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이 출판사에서 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때까지는 三藏譯會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三藏譯會의 설립에 대하여 사회적인 반응은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다. 당시 1921년 8월 28일자 『東亞日報』의 사설에서는 「佛敎의 民衆化 運動」이라는 제목으로 「三藏譯會의 出現」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 사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의 생명은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불경은 純漢文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한문식으로 된 문장으로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대사조로 보거나 아니면 민중의 척도를 보더라도 한문으로만 된 불경이 일반 민중에게 전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중에게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불경의 번역이 시급한 일인데 白相奎를 중심으로 조직된 三藏譯會의 앞날을 축하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글이다. 당시의 『동아일보』에서 사설로까지 다루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다. 그만큼 三藏譯會의 설립은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고 여겨진다¹²⁾.

2) 설립시기 및 장소

이 사설의 날자가 1921년 8월 28일자이므로 아마도 용성의 나이가 58세 때 양력으로 8월경에 三藏譯會가 설립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梵網經演義』는 삼장역회에서 출판하지 않았던 것 같다.

12) 拙論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1)」 『大覺思想』 3輯 (大覺思想研究院, 2000) P,10

그는 출옥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 그가 1916년에 봉익동 1번지의 이룩한 大覺寺는¹³⁾ 감옥에 있는 도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매각되고 말았다. 그는 출옥하여 그전부터 있던 嘉會洞 211번지로 간 것 같다. 이 집은 용성이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시작한 康永勻의 집이 아닌가 라고 추정한다. 가회동 211번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13년 6월 10일에 발간된 『歸源正宗』이다.¹⁴⁾ 그가 출옥하여 가회동 211번지로 가서 주석하였다고 한다면 三藏譯會의 최초 설립 장소는 大覺寺가 아니고 嘉會洞 211번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三藏譯會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출판한 저술은 『心造萬有論』이다. 이는 1921년 9월 29일에 간행되었는데, 출판장소는 가회동 211번지로 되어 있다.¹⁵⁾ 따라서 삼장역회의 장소는 봉익동 2번지가 아니고 가회동 211번지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여기서 1922년 3월까지의 유지하였던 것 같다.

그 근거로는 『金剛經鮮漢文新譯大藏經』¹⁶⁾이 大正11년 즉 1922년 1월 30일에 간행되었는데, 가회동 211번지의 삼장역회로 되어 있으며, 大正11년 3월 16일에 간행된 『首楞嚴經鮮漢文演義』에서도 가회동 211번지로 되어 있다¹⁷⁾. 그러나 大正 11년 9월 8일에 초판을 낸 『팔상록』에서는 발행소를 「京城府 鳳翼洞 2番地 大本山 梵魚寺 京城布教堂 三藏譯會」¹⁸⁾라고 되어 있으며, 大正 11년 9월 15

13) 拙論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제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P32

14) 上同 P18

15) 金井沙門 龍城堂 白相奎 『心造萬有論』 (三藏譯會 嘉會洞 211번지, 1921, 9, 29)

16) 白相奎 譯 『金剛經鮮漢文新譯大藏經』
발행소 경성부가회동 211번지 三藏譯會
발행일 大正 11年 1月 30日
佛紀 2949年 1월 30일

17) 白相奎 譯 『首楞嚴經鮮漢演義』(龍城全集, 9-587)

18) 白相奎 譯 『팔상록』(龍城全集, 9-887)

일에 간행된 『卍金毘羅經』에서는 「京城府 鳳翼洞 2番地 大覺教會」¹⁹⁾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삼장역회는 1921년 8월에 가회동 211번지에서 설립하여 1922년 3월까지 여기에 있다가 1922년 3월 이후에 봉익동 2번지로 옮긴 것 같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정식 출판사로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

三藏譯會의 설립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목적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한글 역경과 저술에 대한 출판사업이고, 시기는 1921년 8월경이며, 장소는 嘉會洞 211번지인 것 같다. 그 후 1922년 3월 이후에 봉익동 2번지인 대각사로 이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저술인 『龍城禪師研究』의 年譜에서 三藏譯會의 설립을 1921년 4월로 정리한 바 있으나 이는 8월경으로 수정코자 한다.²⁰⁾

스님께서 출옥한 이해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둔 불사는 역경과 저술이었다.

1921년 5월 6일에는 『梵網經演義』를 번역하였으나 출판은 하지 못하고 현재는 필사본만이 전해지고 있다. 후기에 의하면,

佛紀2948年 5月 6日 陰曆
金井山梵魚寺沙門 白龍城下筆

19) 白相奎 譯 『卍金毘羅經』 일명 『금비라동자위덕경(金毘羅童子威德經)』(龍城全集, 9-295)

20) 拙著 『龍城禪師研究』 (甘露堂, 1980) P 64 「出獄과 同時에 三藏譯會를 組織해서 1940년 涅槃에 들때까지---」라고 하였으며, P 187의 年譜에서는 「1921년 4월에 삼장역회를 조직 본격적인 譯經작수 大覺教創立(봉익동 3번지)」라고 하여 마치 봉익동 3번지 대각사에서 4월에 삼장역회를 창립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이를 정정하는 바이다.

이라고 되어 있다.²¹⁾ 이것은 스님께서 출옥한 첫 불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그가 옥중에서 역경의 필요성을 얼마나 원하였던가 하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3년간의 옥중생활에서 출옥하자마자 바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범어사 사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간략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은 1932년에 출간한 『覺說梵網經』²²⁾에서 「覺說梵網經心地法門品」 卷上에 생략한 부분을 보완하여 간행하였다.

9월 18일에는 인사동에 있는 조선불교청년회의 회관에서 “불교진리 성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²³⁾ 김광식은 이 강연의 성격을 선학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29일에는 『心造萬有論』을 嘉會洞 211번지의 三藏譯會에서 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금정산 사문임을 밝히고 있다.

3) 三藏譯會 출판사 허가 취득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자료 가운데 三藏譯會의 허가과 관련된 글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어느 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음력 2월 5일에 경봉스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삼장역회가 출판사로서 허가를 취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는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였다. 출판물의 엄격한 검열로 인하여 출판의 허가를 취득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

21) 白龍城 譯 『梵網經演義』 (龍城全集, 13-906)

22) 白相奎 譯 『覺說梵網經』 (大覺教中央本部, 昭和 8年 1月) (龍城全集, 3-87-160)

23)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35

져 있다. 그런데 그는 1921년에 三藏譯會를 설립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정식 출판사로 인가를 받아 등록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초기에는 출판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모두 비매품의 범보시판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경전을 간행하여 비매품으로만 보시다 보니 출판비를 충당할 길이 없었다. 다행히 보시자가 나오면 출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번역은 하였으나 출판비가 없어서 간행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그래서 동지를 구하기 위하여 전국사찰에 편지를 보냈으나 호응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탄하였다.

따라서 그는 출판사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매할 경우 자금이 회전되어 경전의 간행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경봉스님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 언급되어 있다.

日前答書 必想入覽矣 未諳仲春之節 法候萬鞍 住持和尚與同留清衆一
 遭否 并仰溱區區 病衲汨沒塵惱 無足仰讀而
 所謂三藏譯會 得許可書類 數十餘種 但恨錢路難辨 未得盡終然今年內
 左右間 留京之形便 來春後 不可不住山之計則 或可見諒後 內院禪院密
 爲周金 今明年間 完成禪林則 老來安身之策
 豈不曰善乎 雖有住山之心 四顧山野 無與劃策者 故茲以寄託也 勿以尋
 常置之 凡事間極力圖之 勿失好期 如何如何 餘多擾 不戢謹函
 陰 二月 五日 病衲 龍城

라고 한다.²⁴⁾ 여기서 삼장역회의 허가 서류가 수십종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 그 매듭은 끝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머물

24) 釋明正 역주 『三笑窟消息』 (極樂禪院, 1997) P179

려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삼장역회를 정식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후 출판사 허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삼장역회에서는 출판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편지 속에서 날자만 기입하였지 연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경봉스님이 내원암의 만일참선결사에 가기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므로 연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4. 삼장역회의 역할

1) 초기의 譯經期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1년에 저술과 출판한 것은 다음과 같다.

1921년 5월 6일 『梵網經演義』 번역 미 출간.

1921년 9월 29일 『心造萬有論』 저술, 三藏譯會 가회동 211번지에서 출판.

1922년 1월 16일에는 三藏譯會에서 『신역대장경』을 출판하였다. 서문의 말미에 의하면,

1922년 1월 30일에는 다시 三藏譯會에서 鮮漢文金剛經 『新譯大藏經』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1922년 6월 7일에는 『修心正路』를 탈고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1924년에 출판한 『禪門撮要』권5에 삽입되어 있다. 1922년 7월 8일에는 가회동 211번지의 삼장역회 명의로 『首楞嚴經鮮漢演義』(二)를 간행하였다.²⁵⁾ 이것의 번역은 1922년 3월 4일에 완료하였다고

25) 白相奎譯 『首楞嚴經鮮漢演義』(二) (三藏譯會, 大正 11年 7月 8日) (龍城全集, 9-715)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는 三藏譯會를 설립한 후 경전 번역과 강의에 주력을 다하였던 것 같다.

1922년 9월 8일에는 『팔상록』을 간행하였다. 여기에서부터 대각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삼장역회의 주소가 봉익동 2번지로 기재되고 있다.²⁶⁾

1922년 9월 15일에는 『卍金毘羅經』을 봉익동 2번지의 大覺教會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초판본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봉익동 2번지의 大覺寺나 혹은 大覺教會라는 용어와 관련된 것으로는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²⁷⁾ 이때부터 출판물의 발행소를 三藏譯會라는 이름보다도 大覺教會라고 사용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22년 9월 21일에는 『禪門撮要』를 편집의역을 완료하여 1924년 6월 15일에 출간하였다.²⁸⁾

1922년 12월 3일에는 『覺頂心觀音正土摠持經』을 출판하는데 이것도 봉익동 2번지의 대각교회명의로 하였다.²⁹⁾ 여기서는 대각교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변화가 보이고 있다. 觀音菩薩도 觀音正土라고 하며, 釋迦佛을 釋迦大覺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각교를 창립한 것이 확실하다.

그는 1922년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시 한번 정리 해보면, 가회동 211번지에서 三藏譯會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고, 부처님오신날 경에는 봉익동 2번지에 대각사를 다시 구입하여 대각교

26) 白相奎譯 『팔상록』 (三藏譯會, 大正 11年(1922) 9月 8日) (龍城全集, 9-887)

27) 白相奎譯 『卍金毘羅經』 (京城府 鳳翼洞 2番地 大覺教會, 大正11年(1922), 9월 15일) (龍城全集, 9-295) 책명을 『금비라동자위덕경(金毘羅童子威德經)』이라고도 하였음.

28) 白相奎 編集意譯 『禪門撮要』 (龍城全集, 4-365)

29) 白相奎 譯 『覺頂心觀音正土摠持經』 (京城府 鳳翼洞 2番地 大覺教會, 大正 11年 (1922), 12월 3일) (龍城全集, 9-179)

를 창립하였으며, 삼장역회를 대각사로 이전하여 여러 가지의 경전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해에 출판한 것만도 6가지나 된다. 저술과 번역을 마쳤으나 간행하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9가지에 달한다.

1923년 3월 8일에 『금강경』에 대하여 상세히 번역하고 科目을 만들었다. 이를 『詳譯科解金剛經』이라고 하는데 그의 번역서 중 대표가 될만하다.

1924년 6월 15일에는 1923년에 번역하였으나 출간하지 못하였던 『大方廣圓覺經』을 간행하였다. 당시에 三藏譯會에서 간행한 대부분의 출판물들은 비매품인 범보시판으로 되었기 때문에 출판비의 문제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大方廣圓覺經』의 말미에도 범보시 시주자들의 명단과 보시금이 게재 되어있다.³⁰⁾

1924년 6월 15일에 『원각경』과 함께 『鮮漢文譯禪門撮要』도 출간하였다. 이 책 역시 1922년 9월 21일에 번역하였으나 출판비가 모자라서 간행하지 못하였던 원고이다.³¹⁾ 또 부록으로 실려있는 『修心正路』도 1922년 6월 7일에 저술한 것이었으나 출간하지 못하고 있다가 『禪門撮要』와 함께 간행하게 된다.³²⁾

1924년 7월에 창간된 『佛日』이라는 불교지의 편집 동인으로 참여한다. 대표로는 朴漢永과 함께 白相奎의 이름도 올라 있다. 이 잡지의 성격은 조선불교회에 기금을 낸 용주사, 봉은사, 석왕사, 동화사, 백양사, 법주사, 유점사 등이 중심인데 이들은 佛日社友會라는 동호인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배포된 잡지인 것 같다.³³⁾ 처음에는 월간으로 계획하였으나 7월의 창

30) 白相奎 譯 『大方廣圓覺經』 (三藏譯會, 大正13년(1924) 6월 15일) (龍城全集, 7-184)

31) 白相奎 編集意譯 『鮮漢文譯禪門撮要』권5 (龍城全集, 4-365)
“大覺紀元二千九百四十九年壬戌九月二十一日終”

32) 상동 (三藏譯會, 大正13년(1924) 6월 15일) (龍城全集, 4-419)

간호와 11월의 2호로 중간 되고 말았다. 창간호에 용성은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譯解」라는 글을 게재하였다.³⁴⁾

1927년 10월 18일에 간행된 이 『大覺教儀式』은 부록으로 「大覺教歌集」과 「極樂路程記」가 실려 있는데, 모두 한글로 된 의식문이라는 점이 가장 뛰어난 특색이다.³⁵⁾ 지금도 불교의식이 한문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의식을 한글화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중기의 『화엄경』 譯經期

선사의 역경활동 중 가장 정점을 이룬 것이 『화엄경』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화엄경』의 번역사업은 1926년 양산 내원암으로 萬日參禪結社를 이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만일참선결사를 내원암으로 옮길 때 三藏譯會도 이전한다고 하였다.³⁶⁾ 물론 삼장역회의 사무는 봉익동 2번지인 대각사에서 보았다. 그러나 비교적 분망하지 않는 내원암에서 화엄경 번역에 전력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과정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대각응세 이천구백오십삼년 병인 음력 첫 여름 사월 십칠일 하오 이시에 화엄경 번역에 착수하여 익년 정묘년 십일월 십삼일

33)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44

34) 『佛日』 창간호 (佛日社, 1924, 7) PP.36-42

35) 白龍城 著 『大覺教儀式』 (大覺教中央本部, 昭和 2년(1927), 10, 18) (龍城全集, 8-445-628)

36) 『佛敎』 23호 「活句參禪會의 移轉」 (佛敎社, 1926, 5) P.58

상오 십시에 번역을 맞이니 화엄경 번역한 일자 수효를 계산하면 이백오십구일간이오(다만 번역한 일자수만 계산 함) 나의 나히는 륙십사세러라.

라고 한다.³⁷⁾ 그는 이 연기문에서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분망하였던 관계로 경 번역사업이 늦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화엄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회향할 때까지의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즉 시작은 1926년 음력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착수하였다. 당시는 내원암의 만일참선결사의 하안거를 입재하고 이틀 뒤부터이다. 그리고 회향은 1927년 11월 13일 오전 10시에 끝마쳤다고 한다. 햇수로는 2년이며, 달수로는 19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번역하는 도중에 건백서의 제출 등으로 분망한 일도 있었으나 『화엄경』 번역에 전념한 것은 259일간 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내원암과 서울을 오가면서 『화엄경』을 완역했다는 것은 그의 초인적인 능력이었다고 보여진다.

3) 후기의 著述期

용성선사는 1928년 1월 5일에 『八陽經』을 간행하였다. 이 경은 번역이나 주석서가 아니라 道光11년(1831) 華潭敬和스님의 註釋書에 경문만을 한글음으로 표기하여 출간한 것이다. 용성스님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출판이기는 하지만, 삼장역회의 이름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 경은 田榮琦라는 분의 법보시판으로 간행되었다.³⁸⁾

1928년 3월 30일에는 『朝鮮語 楞嚴經』을 출간하였다.³⁹⁾ 이 경은

37) 백상규 역 『화엄경』 권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龍城全集, 12-89)

38) 『八陽經』 (三藏譯會, 昭和 3년(1928), 1, 5) (龍城全集, 9-33-149)

음력 1927년 12월 13일(양력 1928, 1, 5)에 번역을 완료하였던 것인데, 3월에 간행하였다. 용성선사는 『楞嚴經』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이미 1922년 3월 16일에 鮮漢演義 『首楞嚴經』 1권을 간행하였고⁴⁰⁾, 동년 7월 8일에 2권을 출판하였다.⁴¹⁾ 그러나 이 때의 『능엄경』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이었지만, 1928년 3월 본은 순수 한글본으로 되어 있다. 용성선사의 저술에는 『능엄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覺海日輪』에는 『능엄경』의 학설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1930년에는 3월 15일에 『覺海日輪』을 大覺敎堂에서 출간하였고, 9월 15일에는 『팔상록』을 재간하였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大乘起信論』을 大覺敎中央本部에서 출판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灌頂伏魔經』을 大覺敎中央本部에서 간행하였다.

1933년 1월 31일에 大覺敎中央本部에서 『覺說梵網經』 3권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망경』을 번역 간행하면서 「大覺敎授戒儀式」과 「大覺敎懺悔行法」을 정립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大覺敎受戒懺悔行法」을 제정하였다.⁴²⁾ 이러한 수계의식의 제정은 대각교가 하나의 새로운 불교로서 신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33년 6월 17일에는 白雲山 華果院에서 『晴空圓日』을 저술하였는데, 초두에는 저자를 白象奎 著로 되어 있다.⁴³⁾

39) 白相奎譯 『朝鮮語 楞嚴經』(三藏譯會, 昭和 3년(1928), 3, 30) P.86 (龍城全集, 1-881)

40) 白相奎譯 鮮漢演義 『首楞嚴經』(三藏譯會, 大正 11년(1922), 3, 16) (龍城全集, 9-587)

41) 상동 (龍城全集, 9-715)

42) 상동 권상 PP.17-23 (龍城全集, 3-51-64)

43) 白相奎著 『晴空圓日』 권상 (龍城全集, 8-639)에서는 白象奎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36년 4월 6일에 大覺教中央本部에서 『修心論』을 간행하였다.

1936년 7월 15일에는 大覺教中央本部에서 『釋迦史』를 출판하였다.⁴⁴⁾ 이 저술은 종전의 『팔상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편찬되어 있다. 먼저 “대각교 관정사 룡성당 백상규 편술”이라고 하여 스스로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936년 9월 30일에는 三藏譯會에서 『臨終訣』을 간행하였다.⁴⁵⁾

1937년 6월 9일에는 三藏譯會에서 『吾道の眞理』를 간행하였는데,⁴⁶⁾ 한 동안 大覺教中央本部이름으로 저술을 간행하다가 범어사 포교당으로 재산을 이전한 뒤로는 봉익동 2번지의 주소이지만, 三藏譯會의 출판사 명의로 저술을 간행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자신의 불교관을 밝히고 있는데, 수행하는 방법과 마음법문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염불법과 정토법문과 육자주와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설하고 있다. 그리고 수행자는 철저한 지계생활이 중요하다고 설하고 있다.

이해에는 주로 함양 華果院에서 주석하였던 것 같다. 그 곳에 있으면서 『吾道の眞理』와 『吾道는 覺』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吾道는 覺』에서는 화과원에서 저술하였음을 직접 밝히고 있으며, 이곳에서 병중에 기록하였다고 한다. 1937년 양력 6월 20일에 화과원에서 『吾道는 覺』의 원고를 탈고하였다.⁴⁷⁾

그리고 1937년 10월 13일에는 三藏譯會에서 『六字靈感大明王經』을 번역하여 비매품으로 간행하였다. 본서는 『臨終訣』에서 『六字

白相奎의 오자인 듯하다.

44) 백상규 편술 『釋迦史』 (大覺教中央本部, 昭和11년(1936), 7, 15) (龍城全集, 7-647)

45) 白相奎著 『臨終訣』 (三藏譯會, 昭和11년(1936), 9, 30) (龍城全集, 5-563)

46) 白相奎著 『吾道の眞理』 (三藏譯會, 昭和12년(1937), 6, 9) (龍城全集, 4-975)

47) 白相奎著 『吾道는 覺』 (三藏譯會, 昭和13년(1938), 3, 15) (龍城全集, 4-939)
“世尊應化 二千九百六十四年 陽 六月 二十日 病中에 龍城은 錄하다”

大明王經』을 합본으로 간행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더 보완하고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먼저 「육자대명왕경지송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육자영감대명왕경」을 번역하고, 마지막으로 공덕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⁴⁸⁾

1938년 3월 15일에는 전년도에 화과원에서 탈고한 『吾道는 覺』을 三藏譯會에서 출판하였다.⁴⁹⁾ 앞서서도 언급한 마와 같이 본서는 함양 화과원에서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는 선사께서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 같다. 백업(白龔)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문답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실지는 자문자답(自問自答)임을 밝히고 있다.

1938년 5월 15일에는 三藏譯會에서 『천수경』을 번역하여 간행하였다.⁵⁰⁾

1939년 4월 18일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을 번역하여 간행하였다.⁵¹⁾

5.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시대 三藏譯會의 성립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역경활동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으나 먼저 한글 번역에 있어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출옥과 더불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三藏譯會를 설립하였다. 이는 경전을 번역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설립한 刊經都監 이후의

48) 白相奎譯 『六字靈感大明王經』 (三藏譯會, 昭和12년(1937), 10, 13) (龍城全集, 9-29)

49) 白相奎著 『吾道는 覺』 (三藏譯會, 昭和13년(1938), 3, 15) (龍城全集, 4-939)

50) 白相奎譯 『천수경』 (三藏譯會, 昭和13년(1938), 5, 15) (龍城全集, 6-657)

51) 拙論 「용성선사의 역경과 그 의의」 『大覺思想』 5輯 (大覺思想研究院, 2002)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몇 권의 경전을 번역한 일은 있었지만, 조직체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방 이후 조계종단에서 설립한 東國譯經院의 설립에 있어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체계적인 역경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경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삼장역회의 설립이다. 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경사업을 위하여 조직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三藏譯會의 설립이다. 이를 출판사로서 허가를 취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불교출판사로는 최초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새로운 유통망의 조직이다. 삼장역회를 통하여 출판된 서적은 단순한 범보시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유포하였다. 선사는 출판사의 허가와 유통망을 구축하므로 경전을 시판하여 그 수익금이 재투자되어 지속적으로 역경사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경전의 판매를 위하여 광고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경전의 출판을 광고하므로써 새로운 불교계의 광고문화를 개발하였다.

다섯째는 과감한 번역으로 문어체의 경전을 대화체로 바꾸므로 인하여 마치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경전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불교용어들을 새로운 단어로 사용하므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번역한 경전의 종류는 약 30여종에 달하며, 저술도 30여종이나 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화엄경』의 번역이

다. 그리고 그의 사상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覺海日輪』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三藏譯會를 설립하여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저술을 남긴 선사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三藏譯會, 龍城, 覺海日輪, 한글화업경